

보성군, 꼬막산업 제2부흥기 선언

郡, 21억 들여 인공 치패 중간 육성장·종묘 배양장 조성
내년 10월엔 종패 10여t 생산 공급...어가소득 전인 기대

꼬막 주산지인 보성군이 꼬막산업 부흥을 선언했다. 보성군은 꼬막 인공 치패(稚貝=어린 개체) 생산부터 종패(種貝) 생산까지 일-스톱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꼬막 치패 중간 육성장' 조성 사업(12억 원)과 '종묘 배양장 공동 활용 사업'(9억 원)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군은 종묘 배양장에서 치패를 생산하고, 꼬막 중간 육성장에서 종패를 키워서 어가에 싼값으로 보급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군은 양 사업이

완료되면 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패류 생산전진기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군은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지난 4월 별교읍 장암리 일원 부지 2만4108㎡에 건축면적 6685㎡(지상 1층) 규모의 꼬막종묘 배양장을 준공했다. 배양동과 관리동, 부대시설 등을 갖춘 새꼬막, 맛, 피조개, 굴, 백합, 모시조개 등의 종패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됐다.



모래알같이 작은 꼬막 치패.

군은 최근 별교 꼬막 종묘배양장에서 군수, 군의회 의장, 기관단체장, 어업인,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꼬막 인공 치패 생산 및 이식 행사를 가졌다.

꼬막종묘 배양장에서 키운 인공 치패 10kg(2000만 마리)이 첫 출하돼 중간 육성장인 상진 어촌계 어장에 이식됐다. 내년 10

월께에는 이곳에서 키운 10여t의 종패가 어민들에게 공급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1mm 내외의 치패 200kg을 1.5cm 크기의 종패로 키우려 200t이 되고, 3년 후 상품화할 수 있는 성패가 됐을 때는 1000t이 된다"며 "이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14억원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종묘배양장 운영을 맡고 있는 별교해양종묘 김주환 대표는 "종전에 중국산 치패를 살포·이식해왔고, 그동안 꼬막 인공종묘는 불가능하다는 지역어민들의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며 "종묘 배양장에서 키운 꼬막 치패는 국내 자연산 종패와 형질 차이가 없는 우량 인공치패"라고 말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깨끗한 환경, 곡성으로 귀농하세요”

곡성사랑회, 귀성객 대상 유치 홍보행사

곡성 귀농·귀촌자 모임인 곡성사랑회가 도시민 유치를 발 벗고 나섰다. 곡성사랑회 회원 20여명은 최근 곡성역에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도시민 유치 홍보 행사를 가졌다.<사진>

고향인 죽곡면 출신인 한 귀성객은 “먹고살기 위해 서울서 살지만 퇴직하면 고향으로 올 계획”이라며 관심을 보였다. 또 다른 귀성객은 “전국 어디를 다녀봐도 곡성만큼 환경이 좋은 곳은 없다”며 “곡성군에서 조그마한 텃밭을 꾸며 살고 싶다”고 밝혔다.

곡성사랑회 이재용 회장은 “곡성 출신 귀성객들에게 고향사랑 운동을 전개해 서로 정을 나누고,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민선 6기 3대 공약사항인 친환경 귀농·귀촌 원스톱 처리를 위해 빈 집과 매대 가능한 농경지를 조사해 예비 귀농·귀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 단계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서울 코엑스 '보성 세계 차 박람회' 차(茶) 애호가들이 최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보성 세계 차 박람회' 행사장을 찾아 전시된 차 관련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100여개 업체가 참여해 세계 차산업 문화관을 운영하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보성군 제공>

‘목일신 창작 동요제’ 내달 25일 개최

고흥문화회관 일원...동요 '자전기' 작곡 선생 업적 기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우리에게 친숙한 동요 '자전기'를 만든 목일신(1913~1986) 선생은 고흥출신 아동문학가이자 작곡가, 항일운동가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아일보에 동시 '산시대'를 발표했고, 30여 년 동안 교직에 종사하면서 많은 동요를 지었다. 전남도와 고흥군은 목일신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동요 및 문학의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25일 고흥 문화회관 일원에서 '제5회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를 개최한다.

동요제 참가를 원하는 전국 초등학생은 다음달 8일까지 고흥군청 홈페이지(www.goheun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직접 신청하거나, 팩스(061-830-5577)를 이용해 고흥군청 문화관광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참가신청서와 참가곡 악보이다. 동요제 참가부분은 독창과 중창(10명

이내)이다. 참가곡 예선은 자유곡, 본선은 2013 동시대회 우수작을 동요곡으로 창작한 동요 중 1곡을 선택해 부르는 지정곡과 자유곡이다.

본선 16팀 진출을 위한 예선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2시 고흥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이와 함께 동시 백일장은 동시 창작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대상별 각 100~200명을 선착순 접수받아 10월 25일 당일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동요제 대상(1팀)은 교육부장관 상장과 장학금 300만원, 금상(1팀)은 전남도지사 상장과 장학금 200만원 등 총 5개 분야 1060만원의 시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동요지도 교사에게는 가장 지도자상을 신설해 대상 1명 상금 100만원을 포함해 총 680만원의 상금을 지급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고흥은 우주다’ 상징 조형물 우뚝

郡, 거금대교 광장에 높이 20m규모

있던 고흥을 마침내 깨어난 거인으로 표현했다. 또 고흥군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의 작은 우주로 군민들이 이루어내는 화합의 에너지가 그 연원을 이루는 순간을 표현하고 '고흥은 우주다'를 형상화했다.

특히 단순히 보고 스치는 설치물에서 벗어나 이용객들이 주변의 아름다운 풍광을 조망할 수 있도록 조형물 하단부에 고흥의 흥(興)을 일으키는 물결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바람을 상징하는 전파대 기능을 추가했다. 이

밖에도 고흥의 8품(品)·9미(味), 두원 운대 운석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 벽화와 태양광을 이용한 유자·동백 파고라 등 부대시설도 설치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상징 조형물이 소독도와 거금대교, 김일기념관, 적대봉, 거금 생태공원 등을 잇는 관광코스로 연계, 고흥 최고 관광지의 한 축(軸)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어부사시사

전복요리 전문점

여름철 별미

황칠나무로 우려낸

전복삼계탕 15,000원

점심 특선 메뉴

- 전복 비빔밥
- 전복 뚝배기 ₩8,000원
- 전복 갈치찜
- 전복 갈비찜
- 전복 생우럭지리

목포 용해동사무소 뒷편 ☎(061)278-4111

백합촌

오직 양심과 정성만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오늘의 물 좋은 요리

생우럭지리 (국내산)	소 25,000원 중 35,000원 대 45,000원
병 어	45,000원
생선구이 (2인기준)	25,000원 1인추가시 5,000원 추가
백합세트 (탕+우렁+구이)	50,000원
백합탕	중 30,000원 대 40,000원
조기매운탕	중 25,000원 대 40,000원

목포시 상동 1159-3번지 (평화광장 상그리아비치호텔 앞 담양골 건너편)
T (061)281-9907

법무사 배태경 사무소

봉사의 자세로 열정과 성의로 최선을 다할것 약속드립니다.

- 법률 친절 무료상담
- 부동산 등기·법인등기 민사·형사·가사 호적·개명
- 경매 입찰 대행 가압류·가처분 등

T (061)283-2322
F (061)283-2302
목포시 옥암동 목포 검찰청 정문앞